

IV. 日本 動靜

日本 經濟는 불량
채권, 構造 改革
등 많은 문제점을
내포하고 있음

낙관할 수 없는 日本 經濟

○ 國內 經濟의 構造的 문제점

- 금융기관에 거액의 불량 채권이 존재하며 그에 따른 잠재적 손실액은 엄청난 수준임
- 構造 改革이 불충분하여 생산 설비와 고용이 過剩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
 - 설비 투자와 개인 소비의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움

○ 構造 改革의 포인트

- 수출 산업의 해외 이전
- 低生產性 산업 분야의 시장 개방
- 하이테크·內需型의 新產業 육성
- 임금, 地價, 세금의 적절한 조정

(「日經ビジネス」, 9.18)

하시모토(橋本)의
총재 당선은 자민
당의 위기감의 발
로임

하시모토(橋本) 自民 신총재論

○ 「政策通」

- 하시모토는 정치가로서는 「政策通」, 인간적으로는 「오만」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
 - 政策通이라는 評은 政略이 부족하고 원리 원칙주의 자라는 뜻도 内包되어 있음

○ 「고독」과 「人氣」를 겸비한 政治人

- 겸도 5단, 취미는 등산 등 개인플레이에 능하지만 일본의 「공동체」 사회에서는 어울리기 힘든 타입임
- 新자민당 총재로 하시모토가 당선된 것은 차기 총선 거에 대한 위기감 때문임
 - 하시모토는 黨內에서는 「고독」하지만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음

(「日本經濟新聞」, 9.23)

**李登輝 總統이 再選되면 武力行使
도 可能**

中國의 臺灣 侵攻 可能性 高潮

○ 默認할 수 없는 中國의 立場

- 李登輝 總統의 訪美를 계기로 中美·中臺 관계는 급속히 악화되었음
 - 중국은 李登輝 總統의 訪美를 臺灣 獨立運動의一步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를 묵인할 수 없다는 입장임

○ 軍部의 江澤民 壓迫

- 軍指導부가 江澤民의 유화적인 對美·對臺灣 政策을 강하게 비판하였음
 - 江澤民은 권력 유지의 최후의 보루인 軍部의 주장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임

○ 可能性 높은 武力 侵攻

- 來年 3月 선거에서 李總統이 再選에 성공하면 중국의 對臺灣 侵攻 가능성성이 높음
 - 중국은 대만을 武力 解放시킬 힘은 없지만 局地戰을 통하여 대만 경제를 파탄에 빠트릴 힘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짐

(「週刊東洋經濟」, 9.9)

**協調 介入은 金融
政策과 연계되어
야 효과적임**

플라자 合意 10년 - 協調 介入 成功의 條件

○ 折衷的인 換率 制度

- 協調 介入下의 換率 市場은 순수한 變動制와 固定制의 중간에 위치함
 - 換率의 급격한 변화와 通貨 危機를 극복하기 위한 매우 현실적인 政策이라고 말할 수 있음

○ 有效 條件

- 協調 介入이 實效를 거두기 위해서는 각국의 協調 인센티브와 적합한 金融 政策의 동반이 필수적임
 - 개입과 함께 각국의 金融 政策이 적절히 변경되어야 효과가 큼
 - 의표를 찌르는 不意의 介入이 효과적임

(「日本經濟新聞」, 9.22)